

# 출판계가 한글 8822자 살려야

이기성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 전자출판

출판계는 물론 국내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아래아한글(한글)이 없어진다. 1998년 6월 16일자 신문은 이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한글과컴퓨터사가 새 버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천여만불(15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사용자의 80%가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하나가 사라진다는 뜻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출판계나 지식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게 예상된다.

한 나라의 글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글자가 그 나라의 문화를 기록하는 데 불완전하다면, 문화가 다음 세대로 계승·발전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글은 우리 문화를 담는 데 완벽한 글자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잘 조합하여 초성·중성·받침이라는 원칙을 적용시켜서 무려 1만 1172개나 되는 글자(한글 음절)를 만들어 낸다.

출판과 글쓰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은 이러한 우리 글을 자유자재로 소화할 수 있는 독특한 소프트웨어다. 한글과 영어는 자모체계가 다르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의 24개 자소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영어처럼 자음과 모음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24개 자소로 키보드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자음 19개(경음 포함), 모음 14개(이중모음 포함), 즉 33개의 자소를 사용한다.

'한글'은 '현대 한글 글자 1만1천1백72자'와 '옛 한글'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다. 춘향전 같은 고전소설이나 태백산맥 같은 시대물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옛 한글과 방언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이 꼭 필요하다. 다른 워드프로세서로는 쪽자를 만들어 필름 촬영 전에 따붙이거나, 쪽자를 투명 스트리핑 필름에다 올려서 포지 필름에 붙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총 1만1172자에서 8822자의 소중한 우리 글자를 잃어버리게 된다. 제대로 표기할 수 없는 글자가 곧 생명력을 잃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 글자수가 부족하게 되면 발음기호가 필요 없는 고급문자인 한글이 발음기호가 필요한 문자로 바뀔지도 모른다.

'한글'이 사라짐으로 해서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불과 150억~3백억원의 외자유입 조건으로 그 10배가 넘는 3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출판계뿐 아니라, 이미 수백만명에 이르는 '한글' 사용자들은 새로운 워드프로세서 사용법을 익히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출판사나 저자, 정부기관 등에서 보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각종 '한글' 파일 자료와 CD-ROM 자료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엄청나다.

'한글'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보사회에서 정부는 컴퓨터의 운영체제 프로그램이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같은 기간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산업사회의 기간산업이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건설이라면 정보사회의 기간 산업은 1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프로그램과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국인의 한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말할 한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출판인·한글학자·작가·소비자 보호원뿐 아니라 모든 이들은 나서 정보사회의 기간 산업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 알림

《출판저널》은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8월 5일자는 쉬고, 8월 20일자로 제241호를 발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240호(7월 20일자)는 창간 11주년 기념호로 60면으로 증면 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표지 인터뷰	2	정보화 시대, 사라질 운명에 놓인 '한글'
특별 기획	4	다시 찾아야 할 이름 잃은 우리의 문인들 - 이현식
	5	달아오르기 무섭게 식어버린 해금문인 복원열기
특집/오늘의 대학출판부	6	학술발전의 밑거름, 대학출판부가 가야할 길
	8	고급출판 선도하는 영미권 대학출판부 - 김두환
	9	지역 특성 살리는 일본의 대학출판부 - 백원근
	10	국내 대학출판부의 현주소 (양케트)
저자 초대	16	《한국사 이야기》 4권 펴내는 이이화씨
출판화제	17	가고 싶은 북한땅, 책으로 밝아본다
	18	90년대 문화의 '발신기지', 영화
화제의 출간	19	《한국의 한시》(전40권) 시리즈 완간 · 외
특집/여름에 읽는 짧은 소설	20	그림자 놀이 - 송경아
		짜깁기와 글쓰기 - 유영갑
리뷰	22	여름방학에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책 강무홍/권정생/서정오/윤태규/이윤희/ 이호철/조대인/정지선/채인선
기상대담	24	'불꽃의 여자' 로자 룩셈부르크와의 대화 - 임지현
만화	25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이달의 출판광고	28	7 수첩과 책갈피로 아이디어 살린 광고기법 - 마정미
컬러 화보	30	《출판과 미술》 지상전시 이모저모
해외서점 탐방	32	여유로운 문화공간 독일의 후겐두벨 서점 - 박진희
인터넷 출판향해	33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출판부 홈페이지 - 공병훈
서평	38	계명대철학연구소 《실학사상과 근대성》 - 김왕년
		남영신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 - 임동훈
	39	로트만 《문화기호학》 - 김성도
		김원중 《중국문화의 이해》 - 서경호
	40	진교훈 《환경윤리》 - 구승희
		강건일 《신과학은 없다》 - 손병홍
	41	쿨드 《판다의 엄지》 - 김기윤
쟁점	42	하원호의 《식민과 제국의 길》 서평을 읽고 - 이재광
이 책 그 사람	44	《한대수, 물 좀 주소 목 마르요》 펴낸 한대수씨 《사진으로 세상 읽기》 펴낸 오동명씨
	45	《얼씨구, 좋다》 펴낸 정강우씨
	46	새책 속으로 / 50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60	14 황현만 《장승》